

## 카자흐스탄 정당정치 제도화 분석

장한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II. 정당정치 제도화 분석의 이론적 틀
  - III. 카자흐스탄의 정당정치 제도화 분석
  - IV. 결론
- 1. 카자흐스탄의 정당 현황
  - 2. 개별정당의 제도화 수준
  - 3. 정당체계의 제도화 수준

### 초 록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장국을 역임하게 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고는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민주주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카자흐스탄의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당정치는 정당과 정당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별정당의 분석에는 Samuel P. Huntington 의 정치제도화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성, 응집성, 복합성, 적응성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정당체계의 분석에는 Giovanni Sartori 의 유형분류를 사용하였다.

### I. 서론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련 국가들 중 마지막으로 독립국가가 되었다. 다른 신생독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은 독립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국가의 독립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둘째, 구소련 말기부터 심각해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련에서는 법치주의의 근본적 원칙으로서 권력 분립의 개념은 인정되지 않았었다. 권력 분립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정부가 정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져 정당정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카자흐스탄의 정당정치는 1993년 채택된 헌법의 채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행정권과 입법권의 분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설적 의회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정당정치 역사는 짧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과 정당정치는 민주정치의 본질을 형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현대정치에서 정치행위는 정당과 정당체계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sup>1</sup>.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반복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정치는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본 단위를 제공해주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한 국가의 민주정치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sup>2</sup>.

카자흐스탄의 헌법에는 카자흐스탄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것과 이념과 정치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sup>34</sup>. 그러나 발트 3국 및 동구 유럽 국가들이 민주화를 이행해나가는 데 반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5개국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프리덤하우스([www.freedomhouse.org](http://www.freedomhouse.org))는 카자흐스탄을 비자유(Not Free)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sup>5</sup>.

듀베리제(Maurice Duverger)는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민주주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였다<sup>6</sup>. 정당의 제도화는 당의 조직이나 절차가 정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화의 수준에 의해 어떤 정당이 주요 정당이고, 그들이 어떻게 행위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제도화를 통해 정치과정의 기본 틀과 규칙이 정착되며, 기존의 정당정치의 변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폭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된다. 정당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당 자체의 존립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당이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낮으면 정당은 오히려 민주화의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조직체가 아니라 기존 지배세력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의 제도화는 민주화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민주주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카자흐스탄에서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을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sup>1</sup> V. O. Key,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pp.9

<sup>2</sup> 이동윤, “러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유라시아연구」 창간호(2000), pp.31-32

<sup>3</sup> 헌법 제1조 1항: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민주적, 세속적, 법적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삶 및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 국가이다.

<sup>4</sup> 헌법 제5조 1항: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이념과 정치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sup>5</sup> Freedomhouse, Freedom in the World 2008: Country Subscores

프리덤하우스의 민주화 지수 측정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된다. 각 항목은 다시 세분화된 요소로 나뉘어진다. 정치적 권리에 관한 요소 10개와 시민적 자유에 관한 요소 15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치적 권리에 관한 항목의 만점은 40점이며, 시민적 자유에 관한 항목의 만점은 60점이다.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항목의 점수는 1~7점까지의 환산점으로 표시된다. 1에 가까울수록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항목의 평균치를 통해 해당국가를 민주/부분적 민주/비민주 국가로 분류한다. 두 항목의 평균치가 1.0에서 2.5 사이이면 민주국가, 3.0에서 5.0 사이이면 부분적 민주국가, 5.5에서 7.0 사이이면 비민주국가로 분류된다.

<sup>6</sup> Maurice Duverger,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Wiley, 1954)

[표 1] 구소련 국가들의 민주화 지수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평 점	5.5	5.5	4	2.5
정치적 권리	6	6	4	3
시민의 자유	5	5	4	2
<b>정치적 권리의 세부사항</b>				
선거과정의 공정성	3	3	8	10
정치적 다원주의 및 참여	3	3	6	13
정부의 기능	2	3	6	6
<b>시민의 자유의 세부사항</b>				
표현의 자유	7	8	11	13
연대 및 집회의 자유	4	4	7	10
법에 의한 통치 여부	4	4	6	10
개인의 권리	7	7	10	11
국가상태 : 민주 / 부분적 민주 / 비민주	비민주	비민주	부분적 민주	민주

출처: “Freedom in the World 2008: Country Subscores”를 정리한 것임

## II. 정당정치 제도화 분석의 이론적 틀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정당정치는 정당과 정당체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sup>7</sup>. 정당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웨어(Alan Ware)는 정당이란 자주 정부의 공직을 차지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관이며, 단일한 사회적 이익 이상으로 구성된, 어느 정도 ‘집합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 정의하고 있다<sup>8</sup>. 정당은 현대 민주정치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를 통해 정치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공식기구를 구성하는 공직자를 충원해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갈등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9</sup>. 정치체제는 이러한 정당들이 모여 서로

<sup>7</sup>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121-125

<sup>8</sup> Alan Ware,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sup>9</sup> J. LaPalombara and M. Weine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New York: Princeton

상호작용을 이루어 형성되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제도화는 정치발전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당정치를 정당과 정치체계로 구분하는 만큼 정당정치의 제도화 역시 개별정당의 측면과 정당체계의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

## 1. 정당의 제도화 수준 분석의 틀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관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립셋(Seymour Martin Lipset), 로칸(Stein Rokkan)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있다. 립셋과 로칸은 사회의 균열구조에 따라 정당체계가 형성되고 변동된다고 주장한다.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의식 및 성향, 경제적 이익 등이 사회에 균열구조를 형성하고 이것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반영되어 정당체계가 구성된다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이론은 선거를 통해 정당체계의 형성과 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논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카자흐스탄의 정당체계는 유권자들의 정치적·경제적 균열보다는 정치인들의 권력욕 및 정책에 의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카자흐스탄의 정당정치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헌팅턴은 어떤 조직이나 절차의 제도화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적응성, 복잡성, 자율성, 응집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율성은 조직이나 절차가 다른 사회집단으로부터 정당의 독립성 정도를 말하며, 응집성은 그 조직이 기능하는 범위와 그 조직내 갈등의 해소방식에 대한 합의의 정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복잡성은 조직의 하위단위의 세분화 정도를 가리키며, 적응성은 변화하는 정치 환경의 도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헌팅턴의 제도화 개념을 적용하여 카자흐스탄 개별 정당들의 제도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정당체계의 제도화 수준 분석의 틀

정당체계는 복수의 정당간에 이뤄지는 경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상호작용이다. 정당체계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 또한 정당정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화 과정에서는 특히 ‘경쟁구도의 정형화’가 중요하다. 정당체계가 경쟁적이면서도 일정 유형으로 지속되어야 민주정치의 공고화가 용이하다는 것이다<sup>12</sup>.

정당체계의 제도화 수준을 분석하는 대표적 연구로는 락소(Markku Laakso)와 타게페라(Rein Taagepera)의 ‘유효정당수’ 계산법, 선거진동성 계산법 등이 있다. 최근 세 차례의 선거에서 카자흐스탄의 여당인 누르오탄(Nur Otan) 당은 정치장악력을 계속 확대시켜 왔으며 2007년 의회선거를 통해 하원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효정당수와 선거진동성 계산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사르토리의 패권정당 모델의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당체계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정당체계 연구 중 잘 알려진 사르토리의 연구는 정당의 수와 함께 정당간 이데올로기적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University Press, 1966)

<sup>10</sup> S. M. Lipset and S. Rokkan, 「Party systems and Voting Alignment」, (New York: Macmillan, 1967), pp.40-45

<sup>11</sup>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412-420

<sup>12</sup> 박찬욱, “민주화와 정치제도화”,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1호(1997), pp.37

정당체계의 분과성과 분극성의 속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분류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정당의 수와 관련해서 사르토리는 어떠한 정당을 적실성 있는 정당으로 셀 수 있을 것인지를 문제를 고민했다. 그는 먼저 적실한 정당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성을 갖고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득표수를 획득해야 하며, 국민의 지지율이 낮더라도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거나, 또는 야당으로서 여당을 계속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실성 있는 정당의 수를 정의하고 여기에 정당간의 상대적인 힘, 이데올로기의 상이성과 공통성, 지지의 성격, 정당구조 등의 속성을 고려해 정당체계를 유형화했다. 사르토리는 비경쟁적 정당체계에서 압도적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유형으로서 패권정당체계(Hegemonic Party System) 개념을 구성한 바 있다. 패권정당제란 비경쟁적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관제여당을 만들어 정기적인 선거에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야당으로 하여금 만년야당에 머무르도록 무력화시켜 장기집권에 성공한 경우를 의미한다<sup>13</sup>. 이 경우 정당이 민주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어진다.

### Ⅲ. 카자흐스탄의 정당정치 제도화 분석

#### 1. 카자흐스탄의 정당 현황

현재 카자흐스탄의 집권여당인 누르오타당이 의회와 여론을 장악하고 있다. 누르오타당 이외에도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중으로부터의 인기, 영향력, 자금력, 지위 등 모든 부분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2002년 정당법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4개 주와 2개의 특별시에 최소 700명 이상이 당원으로 등록할 것과 총 50,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를 규정하는 등 정당등록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선거에서 7% 이상 득표를 한 정당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이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다.

2007년 5월 개헌과 함께 정당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가 확대되었고 선출방식이 변경되었다. 우선 상원은 총 의석수가 39석에서 47석으로 증가되었다. 기존의 39석은 이전의 방식과 동일하게 선출된다. 14개주 의회 및 2개 특별시(아스타나, 알마티) 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한다.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가 7석을 임명하던 것이 15석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통령은 민족회의의 종신직 의장이다. 민족회의의 구성원 전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그러므로 민족회의에 의해 지명되는 15명의 상원의원은 곧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과 같다.

하원에서도 의석수가 77석에서 107석으로 확대되었다. 개헌 이전 하원은 소선거구제에서 67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로 1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헌 이후 98석을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9명은 민족회의에서 추가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성향을 띠는 소선거구제보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권한의 위임의 분배를 수월하게 하며 다원주의 사회로 변혁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구조화를 촉진시킨다는 장점을 가진다<sup>14</sup>.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대표자를

<sup>13</sup> Giovanni Sartori, 「현대정당론」, 어수경 역, (서울: 동녘, 1986), pp. 167-218

<sup>14</sup> 장원창, “포스트공산주의 사회의 정치체제 변화: 카자흐스탄의 대의제도 형성과 문제점”, 「한국동북아논총」 제

공평하게 선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수 정당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관매직의 문제 및 군소정당의 난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정당법은 14개 주와 2개의 특별시에 최소 700명 이상이 당원으로 등록할 것과 총 50,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를 규정하는 등 정당등록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거에서 7% 이상 득표를 한 정당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이것은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다.

새로운 헌법에 따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2007년 8월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예정보다 2년이나 일찍 실시된 것이었다. 의회해산안이 채택된 지 불과 3달 만에 치뤄진 총선은 가뜩이나 조직력이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야당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었다. 누르오타당은 대통령의 후원, 광범위한 정강정책, 풍부한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98석 전석을 석권하게 되었다. 7%라는 높은 진입장벽은 파편화된 야당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애였으며, 부족한 자금과 선거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야당은 의회 내에 단 1석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sup>15</sup>.

2004년 새로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정당등록을 마친 정당은 2009년 현재 10개이다. 집권당 누르 오타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친여정당, 온건야당, 강경야당의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카자흐스탄 정당 현황<sup>16</sup>

성향	정당명	당원 수	주요 정책 및 비고
집권당	누르오타당 (NUR OTAN)	607,557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생산과 분배에 있어 국민전체의 공동이익과 번영
친여정당	루하니야트당(Ruhaniyat)	172,000	법치와 민주원칙에 의거한 정부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
	애국당 (Party of Patriots)	172,000	법치민주국가 건설, 시장 경제,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의 역할 증대, 높은 수준의 국민보건 달성
온건야당	아딜렛당("Adilet" Democratic Party of Kazakhstan)	70,000	부패 척결
	악졸당 (AK ZHOL)	175,862	민주주의, 독립, 자유, 정의를 기본 가치로 함 * 유일하게 2004년 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한 야당
	아울당 (Auyl)	61,043	사회 민주화를 위한 경제와 정치의 개혁 지지, 국민 생활 수준 향상

7집 (1998), pp.66

<sup>15</sup> Anothony Clive Bowyer,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in Kazakhstan", 「Silk Road Paper」, April 2008

<sup>16</sup> 카자흐스탄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election.kz>에서 등록된 정당을 보고 필자가 직접 정리

	CPK (Communist Party of Kazakhstan)	90,000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계획경제, 사유화와 국유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혼합한 혼합경제운영 및 대외교역의 국가통합, 과거 소연방시의 사회보장 제도로의 환원 등이 주요 정책
	CPPK (Communist People's Party of Kazakhstan)	56,292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구현
강경야당	아자트당 (Democratic party of Kazakhstan "AZAT")	97,157	민주적, 세속적, 법적, 사회적 국가와 열린 사회의 건설 * 친여정당이었으나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당 지도부 중 일부가 야권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집권세력으로부터 간접적인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04년 3월 당 지도부 일부가 숙청됨
	ANSDP (National Social Democratic Party)	140,000	민주적, 법적, 사회적 국가의 건설 경제 혁신, 인간중심의 정책 수행

## 2. 개별정당의 제도화 수준

### (1) 자율성

한 정당의 자율성은 그것이 국내외 다른 제도, 조직, 정치세력 또는 자연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존립하며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카자흐스탄의 정당은 집권당이나 야당 모두 그 형성부터가 대체로 카리스마적 인격 또는 집권자의 필요 및 요구, 지시에 따라 그 지원 밑에서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 옴으로써 인물과 권력에 종속하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였다. 누르오탄당은 나자르바예프에 의해 위로부터 창당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의사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 누르오탄당은 2006년 집권여당인 오타당이 친여정당인 AIST 블록과 나자르바예프의 딸 다리가 나자르바예바가 당수로 있는 아사르당과 통합함에 따라 탄생했다. 국내외로부터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국민의 정권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이다<sup>17</sup>. IRI가 2009년 5월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정부지지도는 8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3당은 이념이나 정책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단지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 편승하고 거대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오타당의 잘 조직된 구조, 무한한 재정적 지원, 대통령의 후원은 바탕으로 이 세 정당의 연합은 2007년 의회 선거를 통해 중앙아시아 최초의 '거대정당'을

<sup>17</sup>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Kazakhstan National Opinion Poll」, May 2009

탄생시켰다<sup>18</sup>.

주요당직자의 임명이나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모두 나자르바예프의 의사와 어긋날 수 없고, 당 운영 또한 그의 존재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의장과 상원의원 15명이 선출되며 의회해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긴급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의회가 이를 입법 조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 발령권을 보유한다. 또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특정정당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야당은 나자르바예프에게 탄압을 받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2005년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 야당 DCK의 해산 등 그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야당 역시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구조이다. 정책이나 이념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없는 인물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약하다. 야당이 인물을 중심으로 파편화된 것은 같은 이념을 가진 정당끼리의 연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2007년 선거에서 1석도 얻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정당이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권력이 정당을 생성시키고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2) 응집성

한 정당의 응집성을 정당 구성원들이 태도와 행태에서 합치를 보이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9</sup>.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당들이 갖는 특성 중 하나는 항상 카리마스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당이 형성된다는 것이다<sup>20</sup>. 2008년 IRI에 의해 카자흐스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정당을 지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는 정당의 당수였으며(35%) 정당의 정책(29%)은 2번째였다. 다른 13%는 정당 내에 어떤 인물이 있는가가 중요요인이 된다고 응답하였다<sup>21</sup>.

나자르바예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누르오탄당의 경우 응집성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념적, 혹은 정책적 동질성이 아닌 후견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일가와 측근들은 국가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를 추종하는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후견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와 “국가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는 오탄당에 있어서 확실한 이점이 된다. 또한 나자르바예프는 누르오탄의 당원들에게 후보공천 및 정치자금과 같은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그의 추종자는 충성심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sup>22</sup>.

집권여당인 누르오탄당 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인물중심 정당이다. 이것은 야당이 같은 이념을 가진 정당끼리 연합하지 못하고 당수를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정당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블라디미르 코사레프(Vladimir Korsarev)는 세리크볼신 아브딜린(Serikbolsyn Abdilin)이 이끌던 공산당(CPK)에서 나와 CPPK를 창당했다. 악졸당 역시 주요 인물들의 편가르기에 의해 둘로 나누어졌다. 2006년 바이메노프(Baimenov)는 악졸당에서 나와 “누구즈 악졸당(Nuguz Ak-zol)”을 만들었다. 이 두 정당은 2007년 의회 선거 전에 다시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그러나 3.09%의 득표를 함으로써 의회진입에는 실패한다.

<sup>18</sup> Anothony Clive Bowyer, op. cit.

<sup>19</sup> 박찬욱, op. cit., pp.29에서 재인용

<sup>20</sup> Anothony Clive Bowyer, op. cit.

<sup>21</sup>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Kazakhstan National Opinion Poll」, August 2008

<sup>22</sup> 이해정·박지범, “카자흐스탄 권위주의의 길”, 「중소연구」 제33권 제2호(2009)



정당이 이념이나 정책의 동질성 없이 주요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정당의 응집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말해준다<sup>23</sup>. 이것은 정당들이 갖은 이합집산을 벌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 (3) 복합성

정당의 제도화에서 복합성 차원은 구조적 분화 즉, 정당내 하위단위가 발달한 정도를 말한다. 이것은 당의 기구가 수평적·수직적으로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를 가리킨다<sup>24</sup>. 누르오탄당은 카자흐스탄에서 유일하게 모든 선거구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당이다. 전국에 740,000명의 당원과 3,400명의 지방의회(маслихат)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영어로 제공되는 정당 신문과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98명의 하원의원들은 분기별로 자신의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누르오탄당은 14개 주와 2개의 특별시 모두에 지구당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지구당에는 지부장을 비롯한 하위구조 역시 갖추고 있다. 또한 30세 이하 당원들의 조직인 콰스-오탄(Жас-Отан)이 있다. 콰스-오탄에는 200,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하원의원 중 3명이 이들 중에서 임명이 되고, 220명은 지방의회의 각 직급에 임명된다. 콰스-오탄은 2012년 선거를 준비하는데 밀바탕이 되고 있다. NGO 단체, 개인 사업자, 무역단체 등과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불만처리위원회와 지방부패척결위원회 등의 기구도 있다<sup>25</sup>. 카자흐스탄의 정당 중에서는 누르오탄당만이 조직적 측면에서 전국에 걸친 하위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야당들은 이러한 조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누르오탄당은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카자흐스탄 전역을 대표하는 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6</sup>.

누르오탄당의 조직구조는 형식적인 면에서 지구당도 갖추었으며 세분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제도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인물중심 정당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동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정당은 집권자 및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대중의 여론을 모아 정당을 통해 정책으로 발현하는 형식이 아닌 중앙당을 중심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하향적 성격이다.

누르오탄당을 제외하고는 세분화되고 복잡성을 띤 하부조직을 갖춘 정당이 없다는 점, 하위조직을 갖추고 있는 누르오탄당 역시 상의하달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카자흐스탄 정당의 복합성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4) 적응성

정당의 적응성은 변화하는 정치환경에의 적응 여부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정당이 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대표하느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박찬욱은 정당의 적응성 수준을 정당이 그 고유한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정당이 그 고유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를 논하게 되면 이미 적응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sup>27</sup>. 정당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만 다루기로 한다. 그것은 대중의 이익과 요구의

<sup>23</sup> 박찬욱, op. cit., pp.29

<sup>24</sup> 박찬욱, op. cit., pp.31

<sup>25</sup> 누르오탄당 홈페이지, “Жас-Отан», [www.ndp-nurotan.kz](http://www.ndp-nurotan.kz)(검색일: 2009.12.1)

<sup>26</sup> Anothony Clive Bowyer, op. cit.

<sup>27</sup> 박찬욱, op. cit., pp.34

취합, 선거경쟁 참여와 권력창출, 그리고 주로 의회를 무대로 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이다.

첫째, 정당이 대중의 이익과 요구를 취합하는 것은 정당이 다수의 대중 속에 자리를 잡고 아래로부터 정책대안을 집약해내고 이와 관련하여 여론을 형성, 조직화하는 기능이다. 정당은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토론을 주도하고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킨다. 국가와 사회, 시민과 정부 사이의 연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기능은 우선 대중적 기반이 튼튼해야 제대로 수행된다<sup>28</sup>. 카자흐스탄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유권자는 8,870,146명이고 어떠한 정치적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는 641,911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18% 이상이 당원으로 이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정당은 조직적 측면에서 상당한 대중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IRI가 2008년 8월과 2009년 2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 중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모두 10% 이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정당은 앞서 밝힌 대로 인물중심의 정당이다. 공통된 이념과 정책을 통한 연대보다는 지도층과 후견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엘리트 층의 후견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당원이 70만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누르오탄당은 나자르바예프의 사적도구라고 보인다. 하원의원들은 분기별로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있지만 IR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떤 중요한 현안에 관하여 정당원과 접촉한 적 있다는 응답은 8%에 지나지 않았다. 접촉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sup>29</sup>.

둘째로 논의되는 정당의 기능은 정당이 선거에서 공직후보자와 정책대안을 내놓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적 경쟁을 구조화하는 역할이다. 앞서 말했듯 카자흐스탄의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의 공직후보자나 정책이 아니라 정당의 당수가 누구인지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정책과 공직후보자들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경쟁을 할 수 없다. 2007년 선거에서 누르오탄당은 대통령을 뒤에 얹고 하원 전석을 석권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선거가 여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만큼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하지는 않지만 선거 결과 자체가 바뀔 만큼의 부정선거나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통령과 여당에게 보내는 국민의 지지는 압도적이라고 평가한다<sup>30</sup>.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명부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의석의 수가 정해지면 그 순서대로 의회에 입성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누가 의석을 얻게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선거법은 정당명부에서 후보자들의 순번을 고정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후보들은 정당명부에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선거 결과가 나오고 정당이 몇 개의 의석을 얻게 되는지 정해진 뒤에야 어느 후보가 의석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 선거 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이름을 웹사이트와 신문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이름 외에 더 자세한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들의 명단을 투표소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권자들이 그들이 투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sup>31</sup>. 이로 인해 선거를 통한 여야 정당간의 정치적 경쟁을 구조화 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셋째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중추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책임정당론이란 바로 정당이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up>28</sup> 박찬욱, op. cit., pp.35

<sup>29</sup>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op. cit

<sup>30</sup> 이해정·박지범, op. cit., pp.35

<sup>31</sup> OSCE/ODIHR, op. cit

이에 따르면 정당은 이념적·정책적 입장을 토대로 조직되고, 선거시에는 그러한 점에서 차별성을 유권자들에게 부각시켜 지지를 얻고, 동일 정당에 소속된 공직자들은 공동의 노력으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형성·집행하도록 한다<sup>32</sup>. 카자흐스탄의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라고 할 수 없다. 정당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책은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요소가 아니다. 정당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대통령에 의해 제한 받고 있다<sup>33</sup>.

### 3. 정당체계의 제도화 수준

패권정당제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다당제 형태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 둘째, 근본적으로 비경쟁적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일당우위를 유지할 만큼 대중지지기반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경우이다<sup>34</sup>. 패권정당체계가 카자흐스탄의 정당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요소의 유무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자흐스탄은 패권정당체계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카자흐스탄의 정당체계가 형식적으로 다당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앞서 말했듯 현재 10개의 정당이 선거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 2007년 의회선거에는 총 7개 정당이 참여했다. 총 400명이 후보로 지명이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NSDP 80명, 누르오탄 126명, PPK 11명, 아올당 33명, 악졸당 98명, 루하니야트 9명, CPPK 20명의 후보신청이 있었다. 카자흐스탄 선거위원회는 이중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후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23명을 제외한 377명을 후보로 등록시켰다. 후보 등록과정은 무난하게 진행되어 불만을 표시하는 정당은 없었다<sup>35</sup>. 비록 야당들이 선거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2004년 총선에서 1석, 2007년에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등 그 영향력은 극히 약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카자흐스탄의 정당체계가 비경쟁적인지에 대한 여부다. 사르토리는 선거에서 경쟁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비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 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법의 규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억압이다. 경쟁자와 반대자가 평등한 권리를 박탈당한다든지 방해받는다든지, 협박과 공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비경쟁 상황이다<sup>36</sup>.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언제나 여당이 불균형적 우위에선 양극구도였다. 야당은 여당에 비하면 매우 불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2005년 1월에는 ‘나자르바예프 없는 카자흐스탄’이란 슬로건을 주장하던 야당인 DCK가 강제해산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2002년부터 언론탄압을 강화해 왔다. 반정부적 저널들의 편집장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비판적인 방송과 신문들이 모두 폐쇄되었다<sup>37</sup>. OSCE는 2007년 의회 선거가 이전에 비해 개선된 면이 있으나 여전히 OSCE의 기준에는 못미치며 몇몇 분야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38</sup>.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일당우위를 유지할 만큼 대중지지기반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는지의

<sup>32</sup> 박찬욱, *op. cit.*

<sup>33</sup> 카자흐스탄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의회해산의 권한, 특정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정상황하에서는 의회의 위임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sup>34</sup> Giovanni Sartori, *op. cit.*, pp. 230-238

<sup>35</sup> OSCE/ODIHR, *op. cit.*

<sup>36</sup> Giovanni Sartori, *op. cit.*

<sup>37</sup> 김일경, *op. cit.*, pp.121-171

<sup>38</sup> OSCE/ODIHR, *op. cit.*

여부이다. 99년부터 07년까지의 세 차례의 하원 총선의 결과는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는 97-98년 대통령의 행정부 축소, 개편 이후 초대통령중심제의 성향이 나타나는 등 권위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시기이다. 권위주의가 공고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꾸준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넉넉한 경제상황과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그 역할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sup>39</sup>. 최근 세 차례의 선거에서 누르오탄당의 하원 장악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07년 의회선거에서 전 의석을 독식했다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40</sup>.

[표 5] 여권의 하원 장악률

	99년 선거 결과	04년 선거결과	07년 선거결과
의석수	58석/77석	75석/77석	98석/98석
의석차지율(%)	75	97	100

출처 : 이해정·박지범, “카자흐스탄 권위주의의 길”, 「중소연구」 제33권 제2호(2009), pp.203에서 재인용

[표 6] 1999년 하원의원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 결과

정당	득표	득표율(%)	비례대표 확보의석
CPK	932,549	20.64	2
농업당	663,351	14.68	2
오탄당	1,622,895	35.92	4
인민의회	148,776	3.29	-
부활당	103,328	2.29	-
아자마트당	240,132	5.31	-
알라쉬당	144,945	3.20	-
노동당	72,721	1.60	-
시민당	590,184	13.07	2
<b>총계</b>	<b>4,518,881</b>	<b>100</b>	<b>10</b>

출처 : OSCE/ODIHR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Report 1999 와 카자흐스탄 선거위원회 <http://election.kz>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sup>39</sup> 이해정·박지범, op. cit.

<sup>40</sup> 외환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IRI가 200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는 강력하고 인기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총 75%였다. 나자르바예프의 연임제한 철폐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57%에 달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일당에 의한 지배와 다당에 의한 지배 중 무엇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자를 선호한다고 응답이 44%로 후자를 선호한다는 응답 35%보다 많았다.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냐는 질문에는 1위부터 3위까지가 물가인상(35%), 낮은 생활 수준 및 임금(24%), 실업(21%) 등 경제악화와 관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극복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2004년 하원의원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 결과

정당	득표	득표율(%)	비례대표 확보의석
오탄당	2,883,706	60.61	7
악졸당	572,672	12.04	1
아사르당	541,239	11.38	1
AIST 블록	336,177	7.07	1
사회인민당	94,140	1.98	-
아울당	82,523	1.73	-
DCK 블록	163,824	3.44	-
애국당	26,287	0.55	-
민주당	36,379	0.76	-
루하니야트당	20,826	0.44	-
<b>총계</b>	<b>4,757,773</b>	<b>100</b>	<b>10</b>

출처: OSCE/ODIHR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Report 2004와 카자흐스탄 선거위원회 <http://election.kz>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표 8] 2007년 하원의원 선거 결과

정당	득표	득표율(%)	비례대표 확보의석
누르 오탄	5,247,720	88.41%	98
ANSDP	269,310	4.54%	-
악졸당	183,346	3.09%	-
아울당	89,855	1.51%	-
CPPK	76,799	1.29%	-
CPK	46,436	0.78%	-
루하니야트당	22,159	0.37%	-
<b>총계</b>	<b>5,935,625</b>	<b>100%</b>	<b>98</b>

출처: OSCE/ODIHR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Report 2007와 카자흐스탄 선거위원회 <http://election.kz>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 IV. 결론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어떤 사회집단에 비해 보다 조직적으로 유권자를 대변하거나 집권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의 제도화가 취약하면 개인 지도자의 지나친 권한 확대, 정당간의 이합집산, 정당원 규모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 등 빈번한 부침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은 국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정치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보다는, 소수

정치 엘리트의 사적 기반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므로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민주정치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정당정치의 이론을 현재 카자흐스탄 정당의 상황에 적용시켜 그 제도화 수준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개별정당의 측면에서는 헌팅턴의 이론에 따라 자율성, 응집성, 복합성, 적응성의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정당체계의 측면에서는 사르토리의 패권정당의 모델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정당의 제도화 수준은 개별정당 측면에서나 정당체계 측면에서나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2010년 OSCE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민주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카자흐스탄에서 정당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카자흐스탄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유목민족 특유의 성향으로 인해 권위적 정권에 익숙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중시하는 문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화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sup>41</sup>. 석유자원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는 지도층의 경제력을 살찌워 권위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특유의 씨족간의 갈등까지 겹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정치 참여의 자발적 확대, 사회균열과 갈등구조를 반영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성장과 시민단체의 분화, 부정선거 양태의 제거, 정당구조와 기능의 정상화 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갑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5
- 김대성 외, 「중앙아시아학 입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 김인성,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5집
- 박수현, “이행기 러시아의 정당정치,”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4호, 1994
- 박창규, “중앙아시아의 정치변동과 권위주의체제,” 「평화연구」 제14권 제2호, 2006
- 박찬욱, “민주화와 정치제도화,” 「한국사회과학」, 제19권 제1호, 1997
- 심지연 외,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2004
- 오도넬 외,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 엄홍철 역, 서울: 한울, 1987
- 유진숙, “이행기 사회에서의 자유주의 우파정당의 발전,” 「국제정치논집」, 제46집 1호, 2006
- 유진숙, “푸틴 집권2기 러시아 정당체계의 성격: 패권정당모델 적용 가능성의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
- 이동윤, “러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유라시아연구」 창간호, 2000
- 이혜정·박지범, “카자흐스탄 권위주의의 길”, 「중소연구」 제33권 제2호, 2009
- 장원창, “포스트공산주의 사회의 정치체제 변화: 카자흐스탄의 대의제도 형성과 문제점”, 「한국동북아논총」 제7집, 1998
- 장병욱, 「중앙아시아 국제정치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sup>41</sup> 이혜정·박지범, op. cit., pp.203-204

- Alan Ware,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Anothony Clive Bowyer,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in Kazakhstan”, 「Silk Road Paper」, April 2008
- Valerie Bunce, “Rethinking Recent Democratization” 「World Politics」, Vol.55, 2003
-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Kazakhstan National Opinion Poll」, August 2008
-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Kazakhstan National Opinion Poll」, May 2009
- J. LaPalombara and M. Weine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 Maurice Duverger,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Wiley, 1954
- Michael McFaul, “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 「World Politics」, Vol.54, 2002
- OSCE/ODIHR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Report 2000/2004/2007
-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lahoma University Press, 1991
- V. O. Key,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http://www.ndp-nurotan.kz>(검색일: 2009.12.1)

<http://election.kz>

<http://freedomhouse.org>